

## (현안리포트)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와 추이와 전망

장 용 훈 / 연합뉴스 북한전문기자

### 북한 권부 내 새로운 변화의 바람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3년간의 유혼 통치 기간을 거쳐 김정일 체제가 본격적으로 수립된 것은 1997년으로 볼 수 있다. 그 해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북한 최대 권력 기구인 노동당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은 1997년 이전부터 노동당의 핵심 권력을 거머쥐면서 사실상 북한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승인권을 가졌지만 김일성 주석과 공동 정부라는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어 1998년 10월에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김정일 체제는 공고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 회의에서는 정무원을 내각으로 바꾸고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부장을 '상'으로 변경했으며 국방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1997년과 1998년으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든 셈이다. 1997년 55세였던 김 위원장은 65세가 됐고 그동안 남북정상 회담과 제2차 북핵위기,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북한은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0년차에 접어든 북한 체제, 특히 권부 내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변화 모색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조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보다는 북한 내부로부터 시작된 자체적 원동력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북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지도부의 변화가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내각 총리와 외무상이 바뀌고 군부 장성급 인사의 이동도 눈에 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 이동은 북한의 경제 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내각 총리에 김영일(63)이 임명되고 대남 정책을 이끄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김양건(69)이 임명된 대목이다.

### 김영일 총리 임명 : 실무 중심 세대 교체 신호탄

김영일 총리의 임명과 관련해 일단 전임 박봉주 총리의 경질은 예고됐던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총리에 임명된 박 전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신임을 받으면서 대담한 개혁안들을 제시했다가 결국 노동당의 인사 조치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업 자금의 유류

구입 자금 전용 등으로 검열을 받으면서 작년 6월부터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월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을 위해 만찬에서 환영 연설을 하기도 해 정치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신임 김영일 총리는 해운대학을 졸업하고 육해운성에서 말단 지도원으로 출발해 교통 부문 전반을 지휘하는 육해운상에 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북한에서 출세 가도의 척도로 여겨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수행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용 과정에 물음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정치적 배경이나 학벌보다는 실적으로 총리직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육해운성은 2005년 남포항에 수 만 톤급 선박 여러 척을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령남배수리공장과 대형컨테이너선을 댈 수 있는 부두를 완공했다. 김 위원장은 그 해 12월 이 곳을 현지 지도하고 흡족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 신임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의 눈에 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일 신임 총리의 발탁 배경이 어디에 있든 이번 북한의 총리 교체는 앞으로 북한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총리가 63세로 북한의 관료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내각 등 경제·외교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발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김 총리가 육해운상으로 배수리공장과 부두 완공 등 대형 사업을 완수한 것이 승진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앞으로 북한 사회에는 실적주의를 통해 기회를 노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측근 김양건 통전부장 기용 : 남북 관계 탄력 예상**

반면 김양건 통전부장의 기용은 전형적인 북한식 인사 스타일에 충실하고 있다. 김 부장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2005년 6.17 면담에도 배석했고 지난 3월에는 김 위원장의 중국 대사관 방문에도 동행했으며 국방위 참사 자격으로 6자회담과 관련된 사안을 실시간으로 챙겨왔다. 국방위원회 참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만큼 김 위원장과의 인간적 거리가 기용의 배경이 된 셈이다.

신임 김 통전부장은 특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나 중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 때는 관련된 사안을 직접 챙길 정도로 대 중국 외교에서 전문성을 보여줬으며 외향적이라기 보다는 전문 외교 관료 출신으로 조용하면서도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학자 스타일로 알려져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떠한 패턴으로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에서 자신을 밀착 보좌하던 김양건 참사를 신임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함에 따라 작년 핵실험 이후 소원했던 남북 관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권력 구조의 특성상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김양건 부장은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바탕으로 '김-김 라인'을 구축해 남북 문제에서 실시간으로 최고 통치자의 결심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 운행이 이뤄지고 각종 남북회담과 남북 관계가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것도 김정일 위원장의 집무실 '문고리'를 쥐고 있는 김 부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양건 통전부장의 기용이 대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라면 박의춘 신임 외무상의 기용은 북한의 외교 정책, 특히 대미 외교 정책의 변화 여부를 주목하게 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올 초 폐암으로 사망한 백남순 외무상의 후임으로 발탁된 박의춘(74) 신임 외무상은 30여 년이 넘게 외교관으로 활동한 전문 외교 관료로 199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년이 넘게 러시아 주재 대사를 역임해 러시아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 외무상은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을 뿐 특별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 인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 방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 차례 방북 당시 러시아 대사로 활동했고 이 기간 북-러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돈독해졌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신임 외무상은 전임 백 외무상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얼굴 마담'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는 대미 외교일 수밖에 없는 만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강 제1부상은 북한의 외교 전략 수립을 총괄해온 '북한 외교의 제갈공명'으로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에 직접 서명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강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내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그룹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본인의 고사과 건강 문제 등으로 막판에 교체됐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외무성 내에서 강 제1부상이 '실세'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신임 박 외무상의 위상은 전임 백 외무상 당시와 같이 '얼굴 마담'의 역할 수행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 군부 인사 대폭 이동 : 국방위원회 실무 기능 강화 눈길

사실 북한의 경제, 외교, 대남 정책을 추진하는 수장의 변화와 더불어 주목을 끄는 것은 군부의 변화다. 북한 당국이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김명국 대장을,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에 정태근 중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방위원회의 진임 보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리명수 전 작전국장이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이동

함에 따라 과거 작전국장을 지낸 적이 있는 김명국 제 108기계화군단 사령관이 작전국장에 다시 부임했다. 신임 김명국 작전국장은 이미 1989년부터 작전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9월 리명수 대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5군단장에 이어 1998년부터 108기계화군단 사령관으로 일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명국 대장이 작전국장으로 활동하던 1995년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아갈 정도로 신임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민군내 사상 및 선전 사업을 총괄하는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에 오른 정태근 중장은 1992년께부터 서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일선 제3군단(황해남도 소재) 정치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전임자인 박재경 대장은 인민무력부 대외사업담당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책상으로는 좌천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명'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이다. 박 대장은 1994년부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으로 활약하면서 2000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의 송이버섯 추석선물을 남측 인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 수시로 동행했으나 지난 2월 22일 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및 협주단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를 끝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군부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방위원회 전임자가 늘어난 대목이다. 김영춘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에는 리명수 대장도 작전국장에서 국방위 전임으로 보직을 새롭게 받았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종 시찰에 동행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들로 이들이 다른 직함을 가지면서 겸직으로 국방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국방위의 전임자로 인사조치 됐다는 점은 앞으로 북한 권부 내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다.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겸직하고 있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를 비롯해 국방위 위원 4명도 모두 겸직이며 최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양건도 노동당 국제부장을 하면서 국방위원회 참사를 동시에 담당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국방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북한 지도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북한 권부의 핵심 실세들이 전임으로 자리를 채우면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앞으로 군 출신 인사들 뿐 아니라 노동당이나 외무성, 각종 경제 기구 등에서도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명실상부 북한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이 될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 김정일 신병 이상설 속 후계 논의 급부상

김정일 체제에서 생겨나고 있는 10년 만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병 이상설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의 시사지 '주간현대(週刊現代)'는 김 위원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의사들을 불러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올해 5월초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모두 23회로, 작년 같은 기간의 42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특히 5월초 이후엔 거의 한달 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병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구나 심근경색은 아버지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사인이었다는 점에서 가족력과 연관성 속에서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건강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최근 지병인 당뇨와 심장, 간 등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김 위원장이 1월 방중 때 비밀리에 베이징에 있는 우주센터 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 원장은 김 위원장이 심장병과 당뇨를 앓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김 위원장의 건강이 정상은 아니며 심장 질환과 당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건강의 적신호는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가 후계 문제와 연관성을 가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장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딘 가운데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세 번째 부인 고영희(2004년 5월 사망)씨 사이에서 태어난 정철(26)과 정운(23) 두 아들이 최근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비롯한 각종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남인 정철은 2001년부터 작년 4월까지, 삼남 정운은 2002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군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주체의 영군술'을 비롯해 군사학을 극비리에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5년 12월 후계 논의 금지를 강력히 지시하는 등 그동안 레임덕 등을 우려해 후계 문제를 외면해왔던 김정일 위원장이 두 아들을 공개석상에 데리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후계 구도 행보를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후계 구도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사를 통해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누가 됐든 후계자를 위한 후견 체제의 강화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0년대 초부터 노동당을 차근차근 장악하면서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공식 후계자로 결정됐다. 반면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그동안 후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후계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김정일 위원장 다음 후계자는 공고한 권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역을 맡았던 김일성 주석과 조선노동당과 같은 역할을 국방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을 벗어나면서 이른바 ‘선군정치’를 강화해 왔고 군부의 기능과 역할이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국방위원회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후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을 풀이된다.

여기에다 북한에서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후계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철, 정운 형제가 김 위원장의 공식 활동에 동행하면서 선두에 나섰지만 이들의 이복 형으로 김 위원장과 성혜림씨 사이에 태어난 장남 정남, 김 위원장의 네 번째 부인이자 퍼스트 레이디인 김옥씨가 경쟁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봉건적 유교 전통이 남아 있는 북한 사회에서 장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김정남은 후계의 명분을 쥐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김정남이 개혁,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진데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철, 정운 형제에게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라이벌인 이복동생인 김평일 현 폴란드 대사 등과 벌였던 치열한 권력 암투가 3대 세습 과정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 43세로 비교적 젊고 국방위 과장으로 김 위원장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옥씨의 존재도 앞으로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 중 하나다. 김옥씨는 그동안 김 위원장에게 후계자 지명을 미루도록 막후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칫 후계 구도가 고착화될 경우 자신이 권력층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측근들을 요직에 등용하는 등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최악의 경제난을 겪은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체제 변화를 시도했다면 이제 북한은 핵을 매개로 미국과 국운을 건 게임을 벌이면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북한 사회가 부분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수용으로 활기를 찾아갔다면 앞으로 벌어질 북한의 정치적 변화가 북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